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가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교육관 기도실(2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낮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고, 지체들에게 전할 성탄 카드를 준비하여 오십시오.
- 성탄전야예배는 24일(토)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이웃에게 나눌 선물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일공동예배를 성탄축하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축하예배 중에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오늘 주일공동예배 후에 공동체운영위원회 잡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결혼 감사)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51 호

2022년 12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복된 추억

내렸던 눈이 정오의 햇빛에도 여전히 얼어붙어있는, 그런 추위가 왔습니다. 주일 아침은 더욱 추울 것이란 예보를 보았던 날, 어떤 기품있는 분께서 양보해주셔서 전기장판이라는 현대문명의 커다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워지기 전의 장판 위에 앉아있었다보니 기시감이 느껴지고, 어렸을 때에 겪었던 대강절 연속기도회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속기도회에 참여할 때의 과정은 비슷비슷했습니다. 표에다 이름을 적어놓은 시간이 되기 30분 전까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하고 싸늘한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이 반쯤 켜져 있는 사무실에선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의 저는 혼자서 3시간 동안의 기도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곤 했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의자 밑으로 발도 안 닿는 초등학교 3~4명이 목사님과 마주 앉아 나름 준비해온 기도제목을 나눴던 그림이 퍽 재밌게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며 기대감에 부푼 저희는 기도의 장을 찾아갔습니다. 앞서 대기하시는 분, 이전 시간에서 초과해서 남아계신 분 등 선객의 유무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곳은 저 위쪽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널찍한 기도실이었습니다. 하필 왜 가장 먼 곳이나면, 애들답게 기도만이 아니라 알뜰하고도 신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연속기도회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당하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서 친한 사람들과 밤과 새벽의 즐거움을 누릴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커먼 밤길을 사무실에서 빌린 크고 빨간 랜턴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실에 도착해서는 [비었음] 팻말을 뒤집어 [기도중]으로 바꾸고, 후다닥 들어가 가장 먼저 전기장판부터 틀었습니다. 선객이 없는 기도실은, 때론 바깥이 낮다 싶을 정도로 차가웠기 때문이지요. 바닥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며 저희는 2명이 덮으면 적당할 크기의 담요를 서로 쪽으로 당기며, 짐을 풀었습니다. 각자의 가방에서는 성경과 그림성서일기, 그리고 먹을 것이나 놀 것들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죄책감 없이 즐거운 시간을 누리기 위해, 안내문에 쓰여 있는 내용을 소리 내 읽으며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반주도 없이 적막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끔 아는 찬양인데도 어떻게 불렀던지 음이 생각 안 나면 멋쩍게 웃으며 통과했습니다. 중보기도도 각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언의 약속으로 너무 길게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안내문을 확인하기 위해 살짝씩 눈을 뜨다가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힐끗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그러고 있던 친구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이 빠르게 못 본 척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때때로 마음 급한 누군가는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 친구에게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나서야 저희는 비로소 기대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일탈(?)에도 선행과정(?)을 가졌으니 주님께서 인정해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애다운 치기가 섞여 있었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고요함 속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주어진 제목과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던 시간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연속기도회 이후 맞이할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던 추억과 함께 말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예비하는 4주간의 기간입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외적으로 기쁨의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사랑방공동체에서는 사회의 끊임없이 흘러가는 흐름속에서 살다가도, 전통적으로 연속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강절에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의 온갖 얽매임에서 벗어나, 체온으로 데워진 방석 위에서 이어지는 기도의 장에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임마누엘(마태복음 1:2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란 이름으로 오셨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도 2022년의 차가운 겨울을 주님께 한층 가까워졌던 은혜로운 시간으로 따뜻하게 추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2장, 419장

기도 :

성경 : 사무엘기상 25장

제목 :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피 흘림을 막다

1. 내용: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다. (What)

<문단구분>

1절 사무엘의 죽음

2절~11절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다

12절~19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날 대책을 세우다

20절~35절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다

36절~44절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다

2. 의미: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막았다. (Why)

1) 나발이 은혜를 모욕과 거절로 갚다.

2)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다.

3)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전하고 평안을 약속하다.

3. 적용: 자신의 신앙에 방심하지 말자. (How)

1)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2)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지 말고 겸손하자.

3)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자.

성서일기

나의 일상과 행복

저는 작업치료사(재활치료사)로 인천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 퇴사 후 포천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개인 시간이 필요했기에 집에서 참 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하고 싶은, 혹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끼는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답을 찾진 못했지만, 지인들의 추천으로 국민연금공단 입사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방문재활운동센터에서 프리랜서 치료사로 양주, 포천 등에서 일하고, 의정부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저녁은 필라테스 매니저로 근무합니다.

이러니 밥 한 끼도 못 먹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하루하루 소화하다 보면 내 삶에 이것보다 더한 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숨 막힐 때가 있지만, 짧은 날에 바쁠 수 있음에, 엔돌핀이 마구 도는 에너지와 마음의 즐거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날의 고민이 있지만 제 이름 '여호와이레'처럼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자녀가 되길 같이 기도해주세요. (이름 지어주신 정태일 목사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12월에 치료를 다니며 감사했던 일과 행복했던 순간을 적은 노트를 공유하려 합니다.

- 버스 탈 때 무거운 알타리무 박스 드는 게 힘드신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건강에 감사
- 치료 중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
-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기저귀로 엉덩이가 뽕뽕 튀어나와 있는 귀여운 아이를 보고 웃음 지음에 감사
-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인 강아지를 볼 수 있음에 감사
- 주일에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낼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 주일날 안식일 주심에 감사
-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어 주심에 감사

교육공동체 김이레 청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5 : 2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디모데전서 2 : 5-6 인도자
105, 9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히브리서 4 : 12-16 설교자
성가대 찬양 120 사랑방
설 교 “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08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용필 이승호 / 봉헌위원 : 김영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저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하신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직분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역할이 필요한데,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세우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다가올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도 사람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의 제사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임시적이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제사의 직분이 영원하며,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사장의 직무, 화목하게 하는 일을 단번에 만족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윤경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의정부 과학도서관에 있는 어린이과학체험실과 의정부 천문대에 다녀왔습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느껴보는 '우주선 탑승체험'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아슬아슬 신나게 가상현실 '4D 영상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돔 천체투영실에서 겨울 밤하늘 별자리를 보았습니다. 조금 겁이 날 만도 한데 꾸러기들은 정말 즐겁게 모든 체험을 잘 했습니다.

천문대에 가서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에 대해 배우고 9개의 태양계 구슬과 작은 소행성 구슬들로 태양계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흑점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주황색 태양을 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우주를 종일 느껴 본 멋진 하루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지난 금요일은 '성경암송의 날'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부르는 날이라 더 멋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온 꾸러기들이 올 한 해 아침모임 시간에 외웠던 성경말씀과 일 년 동안 들었던 성경이야기가 담긴 센싱터스토리 노래를 모두 불렀습니다. 우리 끼리의 발표회였지만 또박또박 말씀을 외우고 반주에 맞추어 정성껏 노래를 부르는 꾸러기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꾸러기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이제 어린이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올 해의 어린이학교 학년말 발표회 주제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부모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학년말 발표회를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도 하고, 여행도 계획

대로 못 가고, 식사시간도 바뀌고, 마스크 끼고 학교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거리두기도 실천하는 등.. 잘 견뎌왔지만 어린이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올 해들어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며 어린이학교에서 해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기에 "이제 어린이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의 의미를 가진 주제였습니다.

춤도 추고, 악기 연주도 하고, 합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시도 읽고, 퀴즈도 내고, 말씀도 외우고 올해는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감동적인 합창과 춤을 준비해주셔서 학년말발표회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감동과 웃음, 재미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3년 만에 다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즐거운 발표회 시간도 가지니 다시 한번 우리는 어린이학교 식구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 학생들은 방학생활 중에 있습니다. 학교생활 속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밀린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주일간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을 하는 중입니다. 2학기 학부모 면담은 목사님과 7명의 선생님들이 멋쟁이 부모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변화되고 달라진 멋쟁이들의 모습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내려서 오시는 길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6학년 부모님들의 면담은 더욱 짙은 시간이었고 6년 동안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모습에 함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부모님들의 진심 어린 말씀에 선생님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사 : 박예나 >

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4학년부터 하게 되는 성가대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선생님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래도 못하는 아이가 성가대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안 시키면 상처 받을 거고, 시키자니 노래를 못하고. 그래서 가게 된 파트가 알토입니다. 저는 정말 음감도 없고 소리도 낮고-그래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알토엔 미음과 파음이 거의 다입니다. 어찌 다 솔이나 라가 나오면 정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음정도 음정이지만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떨린다는 등 싫다는 등 애기들을 하지만 개네들은 모두 잘해냈고, 또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기만 보니 솔로도 한 명만 시키지 않고 여러 아이들을 시키려고 선생님은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겐 기회가 오지 않았고, 부럽긴 했지만 속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곤 생각했습니다. 알토이기 때문에 솔로가 없을 거라고.

사랑방교회는 따로 성가대가 없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성가대의 찬양을 합니다.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감동 없이 찬양하는 자신을 보곤 합니다. '아, 이걸 아는데' 언제부턴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시간의 모든 찬양을 4부로 하면 어떨까-나처럼 음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다행히 핸드폰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찬송가의 4부도 따로따로 들을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파트를 주간 중에 각자 연습해서 주일에 함께 부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준비하는 중에 가사에 은혜 받고, 함께 하는 찬양에 은혜 받고, 예배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의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이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꿈꿨습니다. 흑인인 자기의 아이들이 백인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꿈을.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아니 상상하기도 힘든,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성가대가 되어있는 찬양,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휘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 4부로 웅장하게 울리는 찬양-생각만 해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105장, 118장

성경 : 요한복음 8장 1~11절

말씀 :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하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집중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력난이 심각함.

2) 추운 날씨 속에 남아 있는 난민들을 위해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라파공동체를 위해)

1) 올해가 창립 20주년의 해인데 30주년의 비전을 잘 받아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첫 해가 되기를 위해

2) 농한기 집필 중인 두 권의 책이 잘 마무리 되어 출간되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다음주 대강절 연속기도회에 많이 참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2)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본격적인 한파와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공동체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 공동식구들의 마음은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어린이와 멋쟁이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지만 종강발표회와 학부모 면담으로 교사인 공동식구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공동체에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서 내심 걱정도 했습니다.

시설 동파를 염려하면서 각 처를 살피는 손길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깊은 뜻을 새기며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우리 사랑방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